

勞 動 經 濟 論 集
第26卷(1), 2003. 3, pp. 1~22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이 병 희**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1차 「청년패널」(2001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경험은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이행을 신속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첫 일자리의 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직업태도를 함양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대부분 전공과 무관한 단순업무에 그쳐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평생 일자리(career job)를 획득하는 데 나아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력중시형 노동력 수요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재학 중 근로경험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청년 노동시장, 재학 중 근로경험, 노동시장 성과

I. 머리말

최근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함으로써, 지표상으로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청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고일: 2003년 1월 3일, 심사일: 1월 6일, 심사완료일: 3월 4일.

*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남은 오류는 필자의 책임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lbh@kli.re.kr)

하고 취업비율(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무직으로 남아 있는 유휴인력(out-of-school joblessness)의 규모 역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난과 유휴화 문제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

청년층 노동력 활용도의 저하를 불황기에 기업들이 신규 노동력의 채용을 연기하는 경향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거시경제적인 변동이 청년층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경기 회복기인 1999~2000년에도 청년층 일자리의 증가는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청년층 일자리의 변화를 분석한 拙稿(2002b)에 따르면, 청년층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채용관행은 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의 구조적인 변화는 대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노동력 수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는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과과정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노력도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공에 따른 서로 다른 교육 내용이 임금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지 못하고, 교육의 질보다 수능시험 성적의 임금프리미엄이 매우 크다는 연구 결과(장수명, 2002)는 우리 교육이 인적자본 형성에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노동시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병희, 2001a, 2001b, 2002a, 2002b; 안주엽·홍서연, 2002; 채창균 외, 2002)은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장기화 또는 불안정성이 청년층 노동력의 유휴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근로생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의 취업난과 유휴화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사후적인 실업대책보다는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학교 재학 중에 근로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중심 학습(work-based learning)은 학생의 진로설계 및 경력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중심 학습으로는 현장실습,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연수지원제도,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 여대생 기업연수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등의 자발적인 근로경험의 실태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청년패널」은 재학 중의 근로체험(In-school work experience)의 실태 및 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최초의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

문)대학 졸업 청년층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재학 중의 근로체험의 실태와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일자리 탐색 및 경력형성을 통해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본다.

II. 선행 연구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전일적인 교육을 마치고 난 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왔다. 예를 들어 Ben-Porath(1967)의 근로생애에 걸친 최적 인적자본 축적 모델에 따르면, 생애 초기에 학교교육은 소득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직업생활에 필요한 지식·숙련을 취득하기 위해 전일적으로 투자하는 기간이며, 인적자본 스톡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교육투자의 한계비용과 수익이 일치하는 경우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인적자본 투자는 교육 투자와 노동시장 참여 이후의 경력기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청소년들은 재학 중에 상당한 근로경험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NLSY 1979년 자료와 NLSY 1997년 자료에 따르면, 16세 재학생 가운데 1979년에는 36.4%, 1997년에는 38.4%가 조사 직전의 일주일 동안 취업하고 있으며 (Rothstein, 2001), NLSY 자료의 남자를 대상으로 한 Light(2001)의 계산에 따르면, 고졸자는 평균적으로 16세부터 고교 졸업 시기까지 1,500시간에 이르는 근로경험을 하며, 대졸자는 졸업시까지 5,000시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재학 중 근로경험의 성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근로경험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인해 교육의 잠재적인 인적자본 투자 성과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지식·숙련을 개발함으로써 이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궁합(job match)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재학 중의 근로경험 성과는 교육적 성과와 노동시장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Oettinger(1999)에 따르면, 학기 중의 근로경험이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특히 취업시간이 긴 소수인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여름 방학 중의 취업은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학기 중의 취업은 학업을 소홀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Rothstein(2001)에서는 주당 20시간 미만 취업한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취업 가능성 및 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¹⁾

Meyer & Wise(1982)는 재학 중의 근로시간과 졸업 이후의 근로시간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취업경험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는 자에 비해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다고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Light(2001)는 전통적인 소득 방정식 추정이 전일적인 교육 투자를 마치고 난 뒤 노동시장 성과를 획득한다(harvesting)는 단순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재학 중 근로경험을 통제하지 않고서 추정한 교육 투자의 수익 효과는 재학 중 근로경험의 수익을 포함하기 때문에 교육 투자의 수익 효과가 실제보다 크게 추정된다는 것이다. NLSY 1979~94년 자료를 이용하여 남자를 대상으로 교육 투자의 수익 효과를 추정 한 결과에 따르면, 재학 중 근로경험 변수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통제하였을 경우에 비해 교육 투자의 수익률이 25~44%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실증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단선적인 이행 경로를 밟는 것이 아니라 재학 중에도 시장 통용력이 있는 숙련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업을 경험하는 복합적인 이행 경로를 거친다고 주장한다.

Ruhm(1997)은 NLSY 1979~91년 자료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단계의 근로경험이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장기적으로도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재학 중의 취업이 초기의 노동시장 성과는 높일지라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고교를 졸업하고서 6~9년이 지난 시점의 노동시장 성과를 채택하여 장기적인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징후는 없으며, 고교 3학년에 경험한 근로경험은 이후의 소득, 부가급여, 직업적 지위를 높인다. 비록 교육적인 성취는 다소 낮지만 다양한 추정모델에서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일관되게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그는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투

1) 고교 재학 중 근로경험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의 종합적인 정리는 Ruhm(1997), pp. 740~742 참조.

자 활동이 다소 소홀해지는 이상으로 교육 투자를 통해 획득할 수 없는 지식·숙련개발 및 적극적인 근로태도, 작업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반면 Hotz et al.(1999)는 상반된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기존 연구들이 재학 중의 근로경험과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하지 못하는 요인(unobserved heterogeneity)과 선택편의(selectivity)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취업경험자가 미경험자에 비해 임금이 유의하게 높으며 연령이 증가 하여도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경험자는 교육 수준이 높고 부모의 배경(교육, 가구소득 등)도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교육과 취업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동태적인 선택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재학 중 근로경험의 임금 효과는 그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저하한다고 밝히고 있다.

Ⅲ.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재학 중 근로경험 실태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를 이용하여 재학 중 근로경험의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 보았다. 재학 중 근로경험의 규모는 인구대비 취업자 비중인 취업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2001년 현재 고교 재학생의 취업비율은 2.3%로서, 1997년 미국의 16세 재학생 가운데 38.4%가 취업한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Rothstein, 2001). 이는 우리나라 고교생들이 대부분 전일제 학교교육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열별로는 실업계가 100명 가운데 6.3명이 취업하여 인문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문대 재학생의 취업비율은 22.6%, 대학 재학생의 취업비율은 18.5%에 이르고 있어, 예상보다 근로경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²⁾

2) 산업체 근무자가 (전문)대학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다소 과대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계속교육이 미흡한 우리 실정에 비추어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재학생은 휴학생을 제외한 순수한 재학생임을 밝힌다.

〈표 1〉 청년층 재학생의 계열별 경제활동상태: 2001

(단위: 천명, %)

		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비율
고교	인문계	12	2	1,428	0.9
	예체능계	0	0	13	0.0
	실업계	34	5	507	6.3
	소계	47	7	1,948	2.3
전문대	인문사회계	38	4	83	30.2
	예체능계	9	1	33	21.1
	사범계	5	1	16	24.2
	자연계	58	9	214	20.6
	의약계	5	1	34	13.4
	소계	115	15	379	22.6
대학	인문사회계	104	10	405	20.0
	예체능계	18	1	75	19.2
	사범계	12	1	39	22.8
	자연계	87	12	416	16.9
	의약계	9	0	53	14.6
	소계	230	24	988	18.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에서 재학생의 근로경험 추이를 보면, 고교생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전문대생의 경우는 1990년 9.3%에서 2001년 22.6%로, 대학생의 경우는 1990년 12.6%에서 2001년 18.5%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2〉 청년층 재학생의 경제활동상태 추이

(단위: 천명, %)

		199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고교	취업	78	47	46	37	53	53	47
	실업	6	4	4	10	10	8	7
	비경활	2,527	2,269	2,368	2,293	2,273	2,112	1,948
	취업비율	3.0	2.0	1.9	1.6	2.3	2.4	2.3
전문대	취업	20	68	92	75	91	110	115
	실업	4	6	12	21	23	17	15
	비경활	195	351	367	368	366	359	379
	취업비율	9.3	16.0	19.5	16.2	18.9	22.6	22.6
대학	취업	110	178	220	166	194	221	230
	실업	17	13	20	38	38	27	24
	비경활	742	925	941	923	910	942	988
	취업비율	12.6	15.9	18.6	14.7	17.0	18.6	18.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학 재학생의 근로경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증가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한편 재학 중 취업자의 근로경험 강도를 <표 3>의 주당 근로시간을 통해 보면, 2001년 현재 고교생은 평균 44.6시간, 전문대생은 41.6시간, 대학생은 32.1시간으로 나타난다.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청년층(15~29세) 졸업생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고교 졸업생이 52.7시간, 전문대 졸업생이 50.2시간, 대학 졸업생이 47.5시간이다. 재학생이 졸업생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재학생의 근로시간이 비교적 장시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주당 20시간 이상 취업한 비중을 보더라도 고교 재학생은 88.9%, 전문대 재학생은 86.1%, 대학 재학생은 63.1%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1997년에 16세 재학 중 취업자 가운데 20시간 이상 취업한 비중이 27.3%에 불과(Rothstein, 2001)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재학생 취업자들이 장시간근로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뚜렷이 확인된다.

<표 3> 청년층 재학 중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2001

(단위: 천명, %, 시간)

		고 교	전문대	대 학
근로시간대	~10	2 (3.5)	7 (5.9)	54 (23.6)
	11~20	4 (7.6)	9 (8.0)	31 (13.3)
	21~30	4 (7.6)	11 (9.8)	19 (8.5)
	31~40	8 (17.1)	18 (16.0)	30 (13.0)
	41~	30 (64.1)	69 (60.3)	96 (41.7)
평균근로시간		44.6	41.6	3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는 청년층 재학 중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제시한 것이다. 취업자 가운데 임시·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을 보면, 재학생은 고교 89.3%, 전문대 73.2%, 대학 59.0%를 차지하여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졸업생의 경우 고교 55.1%, 전문대 41.3%, 대학 26.7%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여 재학 중에는 대부분 임시·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청년층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2001

(단위: 천명, %)

		고 교	전문대	대 학
재학	상용직	5 (9.8)	29 (25.0)	46 (20.2)
	임시직	22 (47.0)	46 (39.6)	65 (28.2)
	일용직	17 (37.0)	34 (29.9)	63 (27.3)
	고용주	0 (0.0)	0 (0.2)	2 (0.8)
	자영업자	0 (0.9)	2 (1.6)	46 (20.0)
	무급가족종사자	3 (5.4)	4 (3.7)	8 (3.5)
졸업	상용직	705 (37.3)	441 (54.8)	469 (63.4)
	임시직	778 (41.2)	279 (34.6)	169 (22.8)
	일용직	169 (9.0)	31 (3.8)	14 (1.8)
	고용주	34 (1.8)	10 (1.2)	12 (1.6)
	자영업자	109 (5.8)	21 (2.6)	33 (4.5)
	무급가족종사자	92 (4.9)	23 (2.9)	16 (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V. 「청년패널」에서의 재학 중 근로경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1. 자료의 구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은 2001년 9~11월에 걸쳐 제1차 「청년패널」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만 15~29세 청년층 8,296명을 대상으로 교육·직업선택 및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발견한 사실에 기초하여 근로경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재학 중 근로경험 실태와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기초하여 <표 5>와 같이 표본을 구성하였다.

첫째, 재학 중 근로경험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의 경제활동상태 및 재학 여부에 따라 조사된 '취업자' 및 '미취업자' 설문 응답자 3,588명 가운데 전문대학이

나 대학을 졸업한 1,632명을 추출하였다.

둘째, 이 가운데 교육 수준 정보의 오류, 학교 입학·졸업 연도의 누락, 군 입대의 경우 입대·제대 연도의 누락, 아르바이트를 학교 졸업 이후에 경험한 자료 등을 제외하였다.

셋째, 재학 중 근로경험의 노동시장 성과를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취지에 비추어, 입학 전에 첫 일자리를 가졌거나 졸업하기 1년 이전에 첫 직장에 취업한 경우는 이미 노동시장 경험을 가진 근로자의 계속교육일 가능성이 높아 제외하였으며,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 산정시 군 복무기간의 오류가 있는 표본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409명의 표본을 구성하였다.

〈표 5〉 표본의 구성

(단위: 명)

	누락 표본	개인 표본
1. 재학 중 취업 경험 자료		3,588
전문대졸 및 대졸자 이외 제거	1,956	1,632
교육 수준, 입학·졸업 연도 오류	38	1,594
군 입대·제대 연도 오류	1	1,593
아르바이트가 모두 졸업 이후	2	1,591
2. 첫 일자리 자료		
입학 전 첫 일자리 취업	98	1,493
졸업 12개월 이전 첫 일자리 취업	70	1,423
재학중 입대하여 졸업후 제대	14	1,409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1

〈표 6〉 표본의 특성

		청년패널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빈도수(명)	비중(%)	빈도수(천명)	비중(%)
성	남자	499	35.4	812	39.7
	여자	910	64.6	1,231	60.3
학력	전문대졸	666	47.3	1,074	52.6
	대졸	743	52.7	968	47.4
현재 경제활동상태	취업	821	58.3	1,516	74.2
	미취업	588	41.7	526	25.8
전 체		1,409	100.0	2,042	100.0

주: (전문)대졸 청년(15~29세)임.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이렇게 구성된 표본의 특성을 <표 6>을 통해 보면, 여성이 6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은 52.7%, 현재 취업자는 58.3%에 이른다. 200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구성비와 비교하면 여성과 대졸자의 비중이 다소 높고 현재 취업자의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

「청년패널」에서 '최종 정규교육을 마치기 이전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응답을 통해 재학 중 근로경험을 파악할 수 있다.³⁾ 다만, 응답 결과는 (전문)대학 재학 이전의 아르바이트 경험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7>에서 전체 표본의 57.6%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취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50.2%가, 대학 졸업자의 64.2%가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학 졸업자의 재학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취업경험 횟수를 보면, 취업경험자의 59.9%가 1~2회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4회 이상 취업한 경우도 24.3%로 높게 나타난다.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취업경험자는 평균 3.01회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다.

<표 7>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명, %)

		전 체	전문대졸	대 졸
취업 경험		811 (57.6)	334 (50.2)	477 (64.2)
	1회	275 [34.2]	132 [40.0]	143 [30.2]
	2회	206 [25.7]	94 [28.5]	112 [23.7]
	3회	127 [15.8]	56 [17.0]	71 [15.0]
	4회 이상	195 [24.3]	48 [14.5]	147 [31.1]
취업 무경험		598 (42.4)	332 (49.8)	266 (35.8)

주: []안은 취업경험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1.

3) 설문에서는 현장실습 등의 제도화된 근로경험과 아르바이트 등의 자발적인 근로경험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재학 중의 근로경험으로 통칭한다.

「청년패널」에서는 최대 3개까지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임금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학 중 취업경험의 구체적인 실태를 제한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시작·종료 시기를 통해 재학 중 근로경험의 여부를 학교 단계별로 살펴본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경험은 대부분 (전문)대학 재학 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경험자 가운데 91.4%, 취업경험 횟수 가운데 94.1%가 (전문)대학 재학 중에 취업을 경험하고 있다.

<표 8> 교육 단계별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단위: 명, 개, %)		
		고교 재학중	고교-대학 이행기	(전문)대학 재학중
취업 횟수	1회	36	18	298
	2회	8	2	227
	3회	1	1	177
취업경험자		45 (5.9)	21 (2.7)	702 (91.4)
총 취업경험 횟수		55 (4.0)	25 (1.8)	1,363 (94.1)

주: '고교-대학 이행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취업한 경우임.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1.

한편 (전문)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 종류를 살펴보기 위해 최대 3회의 아르바이트 종류를 누적하여 5% 이상 차지하는 아르바이트를 <표 9>에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대졸자의 경우 과외경험이 21.5%를 차지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주로 음식점 서빙, 판매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사무보조 등의 단순업무에 종사하며, 전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경험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전문)대학 재학 중의 아르바이트 종류

		(단위: %)		
종 류	전 체	전문대졸	대 졸	
서빙	21.1	27.2	17.7	
판매서비스직	15.2	18.8	13.2	
과 외	14.7	2.8	21.5	
단순노무직	6.0	6.3	5.9	
사무보조	5.6	4.1	6.5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1.

재학 중 취업경험자들의 누적 취업경험 기간 분포를 <표 10>을 통해 보면, 3개월 이하가 40.7%를 차지하는 반면 1년 이상 경험한 경우도 23.2%를 차지하여 장기취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재학 중 취업경험자의 주당 노동시간 분포를 보면,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는 비중이 38.9%에 이르고 20시간을 초과한 취업경험자 또한 73.3%에 이르러, 아르바이트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10> (전문)대학 재학 중의 아르바이트 강도

(단위 : %)

		전 체	전문대졸	대 졸
취업 경험기간	~ 3개월	40.7	49.8	34.8
	4 ~ 6개월	20.6	17.8	22.5
	6 ~ 12개월	15.5	17.0	14.6
	1년 ~	23.2	15.4	28.2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0	17.5	12.5	20.8
	11 ~ 20	9.3	4.4	12.5
	21 ~ 30	16.6	12.1	19.6
	31 ~ 40	17.8	20.5	15.9
	41 ~	38.9	50.6	31.1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1.

3. 재학 중 근로경험의 노동시장 성과

가. 첫 일자리의 이행기간

정규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에서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이행 과정은 이후 근로경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병희, 2002b). 여기에서는 재학 중 근로경험이 첫 일자리를 취득하기까지의 이행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청년패널」에서는 정규교육 이후 첫 직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이 첫 직장일 경우 첫 직장에 대한 현재의 정보를, 그렇지 않을 경우 회고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표 11>을 보면, 전체 표본 1,409명 중 1,209명은 첫 일자리 경험이 있으나 200명은 조사 시점까지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이 없는 우측 절단된(right censored) 표본이다. 근로경험 유무별로 보면,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표 11> 재학 중 근로경험 유무별 첫 일자리 취업경험률

(단위: 명, %)

전 체		취 업	미취업	검정통계량
		1,209 (85.8)	200 (14.2)	
전 체	근로경험 유	689 (85.0)	122 (15.0)	$\chi^2=1.130$ P=0.288
	근로경험 무	520 (87.0)	78 (13.0)	
전문대졸	근로경험 유	289 (86.5)	45 (13.5)	$\chi^2=0.021$ P=0.886
	근로경험 무	286 (86.1)	46 (13.9)	
대 졸	근로경험 유	400 (83.9)	77 (16.1)	$\chi^2=2.307$ P=0.129
	근로경험 무	234 (88.0)	32 (12.0)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1.

첫 일자리 경험률은 졸업 이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노동시장 성과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 이하에서는 졸업 이후 첫 일자리를 취득하기까지의 이행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년층의 경우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 간의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병희, 2001a)에 비추어, 첫 일자리를 취득하기까지의 미취업기간은 학교-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행기간은 첫 일자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졸업 이후 첫 일자리를 취득하기까지 경과한 기간으로 정의하며, 첫 일자리를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졸업 이후 조사 시점까지 경과한 기간으로 정의한다. 이 때 군 복무 경험자의 경우 조사 시점까지 제대하지 않았을 경우 입대 시점에서 우측 절단된 값으로 측정하며, 졸업하고 난 후 군대를 입대하여 제대하고 나서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 이후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경과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이행기간(미취업기간)의 분포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전체 표본 중 17.0%는 졸업하기 이전에 이미 첫 일자리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졸업 이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39.1%에 불과하며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이행기간을 경험한 비중이 27.6%에 이르고 있다. 평균 이행기간⁴⁾은 10.2개월로 나타나며,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자에 국한할 경우 8.1개월로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의 주된 관심인 재학 중 근로경험이 이행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유의하게 이행기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경험이 있는 청년층

4) 첫 일자리를 취득하기까지의 평균 이행기간을 계산할 때, 졸업하기 이전에 이미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0으로 처리하였다.

〈표 12〉 재학 중 근로경험 여부별 첫 일자리 이행기간의 분포

(단위: 명, %, 개월)

		<0	0~3 개월	4~6 개월	7~12 개월	1~2년	2년 이상	검정 통계량	평균
전 체		239 (17.0)	437 (31.1)	112 (8.0)	231 (16.4)	211 (15.0)	177 (12.6)		10.2
전체	근로경험 유	157 (19.4)	261 (32.2)	68 (8.4)	133 (16.4)	118 (14.6)	73 (9.0)	$\chi^2=27.286$ P=0.000	8.5
	근로경험 무	82 (13.7)	176 (29.5)	44 (7.4)	98 1(6.4)	93 (15.6)	104 (17.4)		12.5
전문 대졸	근로경험 유	60 (18.0)	113 (33.9)	27 (8.1)	55 (16.5)	52 (15.6)	26 (7.8)	$\chi^2=19.191$ P=0.002	8.2
	근로경험 무	42 (12.7)	103 (31.0)	21 (6.3)	60 (18.1)	45 (13.6)	61 (18.4)		13.2
대졸	근로경험 유	97 (20.3)	148 (31.0)	41 (8.6)	78 (16.4)	66 (13.8)	47 (9.9)	$\chi^2=11.403$ P=0.044	8.7
	근로경험 무	40 (15.1)	73 (27.5)	23 (8.7)	38 (14.3)	48 (18.1)	43 (16.2)		11.7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1.

의 경우 졸업하기 이전에 첫 일자리를 취득하는 비율은 19.4%로서 근로경험이 없는 자의 13.7%에 비해 높다. 그리고 졸업 이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근로경험이 있는 경우 40.6%로서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의 36.9%에 비해 높다. 또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이행기간을 경험하는 비중은 각각 23.6%, 33.0%로서 근로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그렇지 않은 청년층에 비해 이행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재학 중 근로경험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히 하는 효과는 학력별로도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평균 이행기간을 보면, 전문대졸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8.2개월로서 미경험자의 13.2개월에 비해 짧으며, 대졸자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8.7개월로서 미경험자의 11.7개월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통제하고서도 재학 중 근로경험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해저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조사 시점에서 미취업경험자의 경우 미취업기간은 불완전한 관찰치이다. 해저드 모형은 관측기간 동안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이 없는 우측 절단(right-censoring)된 표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치성을 가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해저드 함수 $h(t)$ 는 어떤 사건(T)이 시점 t 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이 이 시점 t 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이다. 본 추정에서는 미취업상태가 지속되다가 취업으로 순간적인 이행을 하는 경우가 해저드에 해당한다.

$$h(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 t + \Delta t | T > t)}{\Delta t}$$

본 연구에서는 Cox 비례해저드 회귀분석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해저드 함수의 형태를 구체화하였다. X 라는 설명변수 벡터를 가지는 관측치의 t 기에서의 해저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h(t) = h_0(t) \exp(X' \beta)$$

이 때 $h_0(t)$ 는 설명변수와는 독립적인 t 기에서의 기본 해저드(baseline hazard)를 나타낸다.⁵⁾ 따라서 Cox 모형에서는 매기에서의 해저드 변화가 기본 해저드에 의해 결정되며, 설명변수 (x)는 그 크기와 β 의 값에 따라 단순히 기본 해저드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Cox 모형을 통해 기본 해저드의 분포에 대한 함수를 가정하지 않고서도 설명변수가 해저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인 재학 중 근로경험 변수는 재학 중 근로경험 여부와 재학 중 근로경험 강도를 사용하였다. 아르바이트의 횟수나 기간 등은 학력이 높고 재학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학 중 근로경험의 강도를 (전문)대학 재학기간 중 아르바이트 기간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으로 정의하였다.⁶⁾ 설명변수로는 성과 함께 교육 수준, 전공계열 등의 교육선택변수,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구의 근로소득 등 의중임금 및 일자리 탐색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표 13>에 제시된 추정 결과를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첫 일자리로의 탈출률이 유의

5) 졸업하기 이전에 첫 일자리를 취득한 표본이 17.0%에 이르러, $t=0$ 기에서의 집중점(mass point)를 고려한 별도의 해저드 함수 $h_0(0)$ 를 추가하여 분석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이행기간의 분포에서 보듯이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미경험자에 비해 졸업하기 이전에 첫 일자리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본 연구의 관심인 재학 중 근로경험이 첫 일자리로의 탈출에 미치는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6) 아르바이트 횟수와 기간은 학력이 높고 재학기간이 길수록 증가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학 중 근로경험 강도의 지표로 대학 재학기간 중 근로경험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지적한 한 논평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하게 낮게 나타나, 남성의 첫 일자리 탐색기간이 여성보다 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대졸자의 첫 일자리 탈출률은 전문대졸자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인문사회계열을 기준 변수로 한 전공별로 보면, 이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첫 일자리로의 취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의·약학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등의 기타 계열은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탈출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배경변수는 우리의 표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의 관심인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의 효과를 추정한 (1)이나 아르바이트 강도의 효과를 추정한 (2) 모두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첫 일자리를 신속하게 획득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첫 일자리 이행 취업 해저드 추정 결과 : Cox 해저드 분석

	표본 특성		(1)			(2)		
	평균	(표준편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추정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남성 더미	0.354	(0.478)	-0.160	(0.071)	**	-0.154	(0.071)	**
대졸 더미	0.526	(0.499)	0.004	(0.068)		0.029	(0.067)	
이공계열 더미	0.399	(0.489)	-0.066	(0.076)		-0.079	(0.076)	
기타계열 더미	0.199	(0.399)	0.176	(0.089)	**	0.182	(0.089)	**
아버지 고졸 더미	0.410	(0.491)	-0.113	(0.081)		-0.110	(0.081)	
아버지 전문대졸 이상 더미	0.164	(0.370)	-0.118	(0.122)		-0.123	(0.122)	
어머니 고졸 더미	0.310	(0.462)	0.047	(0.085)		0.045	(0.085)	
어머니 전문대졸 이상 더미	0.046	(0.209)	0.205	(0.184)		0.140	(0.185)	
가구 근로소득(만원)	260.833	(395.248)	0.000	(0.000)		0.000	(0.000)	
재학 중 근로경험 더미	0.573	(0.494)	0.191	(0.067)	***			
재학 중 근로경험 강도(%)	11.521	(22.779)				0.003	(0.001)	**
-2 LOG L			6,877.595			6881.324		
Wald Chi-Square			26.903 ***			23.4198 ***		
표본수			1,284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1.

나. 첫 일자리의 임금

첫 일자리의 질을 대표하는 지표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자 가운데 임금근로자에 국한하여 월 평균임금을 2000년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임금 지급 시점이 별도로 조사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일자리가 첫 일자리인 경우에는 조사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그리고 첫 일자리를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이직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였다. 또한 월 평균임금의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기 위하여 월 평균임금의 상하위 1% 표본에 대해서는 상하한 값을 설정하여 상하위 1% 표본의 월 평균임금으로 대체하였다.

<표 14>에서 재학 중 근로경험 유무별로 월 평균임금을 비교하면,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비경험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14> 재학 중 근로경험 유무별 첫 일자리의 월 평균임금

(단위 : 명, 만원)

		표본수	월 평균임금		검정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t	Pr > t
전 체		1,172	99.5	(58.1)		
전 체	근로경험 유	665	100.7	(70.4)	0.88	0.381
	근로경험 무	507	98.0	(36.2)		
전문대졸	근로경험 유	276	90.5	(35.2)	0.45	0.650
	근로경험 무	280	89.2	(30.6)		
대 졸	근로경험 유	389	108.0	(86.4)	-0.14	0.886
	근로경험 무	227	108.7	(39.6)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1.

이제 첫 일자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통제하고서도 재학 중 근로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월 평균임금의 자연대수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통상 회귀분석을 하였다. 설명변수로써 성, 혼인 여부 등의 인적 특성과 함께 교육 수준, 전공계열 등의 교육선택변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비정규직,⁷⁾ 첫 일자리에서의 근속 및 사업체 규모 등의 사업체 특성과 함께 학교 졸업 이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변수를 통제하였다.

7) 「청년패널」에서는 첫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분류로 제시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금 근로자'라는 항목에 표본의 82.2%가 응답하였다. 소규모 사업체 등 다수의 사업체에서 서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관행에 비추어 이러한 응답자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있다고 추측된다. 참고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년 9월)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40.7%에 이른다 (안주엽·조준모·남재량, 2001: 45). 그러나 「청년패널」 설문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중 근로지속 가능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으로 간주하였으며, 따라서 정규직의 비중이 과대 측정되었음을 밝혀 둔다.

<표 15>의 추정 결과를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첫 일자리에 높은 임금을 받는다. 학력별로는 대졸은 전문대졸에 비해 17.6%의 높은 임금을 받지만, 이공계열이나 기타계열은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 선택보다 교육수준이 첫 일자리의 임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사업체 특성은 상식과 부합된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우리의 주된 관심인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나 강도 모두 첫 일자리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⁸⁾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문

<표 15> 재학 중 근로경험이 첫 일자리 임금에 미치는 효과

	표본특성		(1)			(2)		
	평균	(표준편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상수항			4.092	(0.045)	***	4.080	(0.044)	***
1. 인적 특성								
남성더미	0.327	(0.469)	0.176	(0.023)	***	0.178	(0.023)	***
기혼 더미	0.173	(0.379)	0.029	(0.028)		0.028	(0.028)	
대졸 더미	0.527	(0.450)	0.153	(0.021)	***	0.150	(0.021)	***
이공계열 더미	0.385	(0.487)	-0.008	(0.024)		-0.010	(0.024)	
기타계열 더미	0.211	(0.408)	0.039	(0.028)		0.039	(0.028)	
2. 첫 일자리 특성								
근속(월)	17.760	(16.205)	0.005	(0.001)	***	0.005	(0.001)	***
사업체 규모 30-299명 더미	0.334	(0.472)	0.134	(0.023)	***	0.134	(0.023)	***
사업체 규모 300인 이상 더미	0.150	(0.357)	0.261	(0.031)	***	0.262	(0.031)	***
비정규직 더미	0.113	(0.317)	-0.087	(0.033)	***	-0.087	(0.033)	***
주당 평균근로시간(시간)	48.373	(14.650)	0.002	(0.001)	***	0.002	(0.001)	***
3. 첫 일자리 이행기간(월)	7.277	(12.479)	0.001	(0.001)		0.001	(0.001)	
4. 재학 중 근로경험								
재학 중 근로경험 더미	0.567	(0.496)	-0.003	(0.021)				
재학 중 근로경험 강도(%)	11.612	(22.874)				0.001	(0.000)	
Adj R-Sq			0.225			0.227		
F-value			29.01 ***			29.29 ***		
표본수			1,160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1.

8) 종속변수를 시간당 임금의 자연대수값으로 하더라도 추정 결과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로 한 추정모형의 설명력은 매우 낮게 나타나, 평균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응답 오류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월 평균임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설명변수로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졸과 대졸로 구분하더라도 아르바이트 경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생산성을 증가하는 기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표 10>에서 보았듯이,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대부분 단순업무에 불과하고 전공과 관련없는 일자리의 내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⁹⁾

V. 요약과 시사점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와 「청년패널」(중앙고용정보원) 자료를 이용하여 (전문)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문)대학 재학생 5명 가운데 1명꼴로 매월 취업을 하고 있으며, 「청년패널」에 따르면 (전문)대학 졸업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대부분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단순업무 중심이고 교육 내용이나 전공과 관련된 근로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이행을 신속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첫 일자리의 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직업태도를 함양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지식·숙련을 개발하여 평생 일자리(career job) 획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대부분 단순업무에 불과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생각된

9) 이러한 추론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향후 「청년패널」 조사에 “재학 중에 경험하는 아르바이트가 전공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중시형 노동력 수요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재학 중의 근로경험 프로그램은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전공과 무관한 단순업무 중심의 근로경험은 체계적인 경력 형성에 기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정부는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연수지원제도 등의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경험을 통한 현장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적성에 적합한 연수 기업을 선정하고 교육과 연계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미치는 효과를 첫 일자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력 형성을 분석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가족적 배경이나 초기 능력의 차이 등 관찰하지 못하는 요인에 의한 선택편의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¹⁰⁾ 이러한 문제 해결은 이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안주엽·조준모·남재량.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II』.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안주엽·홍서연. 「청년의 학교졸업후 구직기간 분석」. 『노동정책연구』 2권 1호 (2002. 3): 19-46.
- 이병희.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권 1호 (2002. 3): 1-18. (a)
- 이병희.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2. (b)
- 이병희.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경력형성」.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4권 1호 (2001.

10) 관찰하지 못하는 요인이 재학 중 근로경험과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한다(Ruhm, 1997; Hotz et al., 1999). 그러나 제1차 「청년패널」에서는 가족적 배경이나 관찰하지 못하는 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재학 중 근로경험에 영향을 미치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들을 찾아 선택편의를 교정할 수 없었다.

- 3): 108-130. (a)
- 이병희. 「청년실업과 경력형성」. 『산업관계연구』 11권 2호 (2001. 11): 153-176. (b)
- 채창균 · 장홍근 · 오은진 · 이병희 · 이주호 · 이만희. 『청년층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 장수명. 「대학교육의 경제학」.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2002. 3): 47-79.
- Ben-Porath, Yoram. “The Production of Human Capital and the Life Cycle of Earning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5 (August 1967): 352-365
- Hotz, V. Joseph. Xu, Lizin. Tienda, Marta. & Ahitiv, Avner. “Are There Returns to the Wages of Young Men from Working While in School.” *NBER Working Paper 7289*, August 1999.
- Light, Audrey. “In-School Work Experience and the Returns to School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 (1) (January 2001): 65-93.
- Meyer, Robert. H., & Wise, David A. “High School Preparation and Early Labor Force Experience.” In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edited by Richard B. Freeman and David. A. Wise, pp. 277-34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Oettinger, Gerald S. “Does High School Employment Affect High School Academic Performanc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53 (1) (October 1999): 136-151.
- Rothstein, Donna. S. “Youth Employment during School: Results from Two Longitudinal Surveys.” *Monthly Labor Review* (August 2001): 25-37.
- Ruhm, Christopher J. “Is High School Employment Consumption or Invest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4) (October 1997): 735-776.

abstract

The Effects of In-School Work Experience on Subsequent Labor Market Outcomes

Byung-Hee Lee

Many students accumulate work experience while they attend college. Using data from Korean Youth Panel, I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school work experience on school-to-work process. Work during college contributes to take first job quickly after school, but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wage level of first job. These results show that in-school work experience might help job search but not provide skills and knowledg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link the youth internship programme to in-school learning in collaboration with school.

Key word : youth labor market, in-school work experience, labor market outcomes